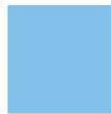




2012년 11월 13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개선되는 현재, 불확실한 미래로 걱정한다

• 경제분석

국내경제 Chartbook: 제조업보다 양호했던 서비스업

• 이머징마켓 동향

지표 개선 및 정책호재로 상해증시 강세 전환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엠케이전자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영이엔씨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건설, 음식료,

CJ E&M, 삼성생명, 네패스, 루멘스, 태광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05(월)	11/06(화)	11/07(수)	11/08(목)	11/09(금)	11/12(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08.22	1,928.17	1,937.55	1,914.41	1,904.41	1,900.87
	등락폭	-10.50	19.95	9.38	-23.14	-10.00	-3.54
	등락종목	상승(상한)	496(4)	410(4)	270(11)	362(4)	391(7)
		하락(하한)	373(8)	401(3)	534(1)	446(5)	436(4)
	ADR	82.07	83.26	87.20	85.84	84.13	86.25
	이격도	10 일	101.02	101.39	100.23	99.64	99.41
		20 일	100.18	100.69	99.54	99.09	98.97
	투자심리	50	60	7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37	540	550	654	629	469
	거래대금 (십억 원)	4,538	4,501	4,580	5,304	4,745	3,735
코스닥	코스닥지수	515.14	517.53	518.45	519.04	519.90	521.43
	등락폭	1.77	2.39	0.92	0.59	0.86	1.53
	등락종목	상승(상한)	481(10)	459(12)	382(4)	446(6)	452(9)
		하락(하한)	439(1)	464(2)	536(4)	469(5)	475(3)
	ADR	82.24	81.67	84.50	83.45	81.63	85.88
	이격도	10 일	101.31	101.61	101.71	101.59	101.36
		20 일	99.67	99.99	100.26	100.62	100.99
	투자심리	70	70	70	80	90	100
	거래량 (백만 주)	382	459	455	455	406	409
	거래대금 (십억 원)	1,697	2,113	1,830	1,778	1,645	1,883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68.2	705.3	846.9	160.6	81.5	185.7	48.0	28.2	160.1	43.3
	매도	2,131.3	859.6	744.5	165.9	94.7	218.7	48.9	19.8	117.2	28.4
	순매수	37.0	-154.2	102.4	-5.3	-13.2	-32.9	-0.8	8.4	42.9	14.9
	11 월 누계	390.3	-113.0	0.2	207.1	0.6	-88.5	7.9	36.4	286.8	-277.5
	12 년 누계	-10,686.9	13,564.9	2,055.7	1,790.9	2,563.0	-5,181.4	-13.4	454.1	2,527.3	-4,933.7
코스닥	매수	1,676.6	74.5	135.6	25.1	15.0	55.5	10.7	5.4	20.0	17.8
	매도	1,719.1	63.0	102.3	17.3	13.6	33.6	8.5	3.8	22.8	20.2
	순매수	-42.5	11.5	33.4	7.8	1.4	22.0	2.2	1.6	-2.8	-2.4
	11 월 누계	-48.1	-64.2	141.3	56.5	2.1	57.0	-13.1	9.6	24.7	-29.1
	12 년 누계	1,044.6	50.3	-351.4	108.8	83.1	-557.3	-208.4	-28.7	246.4	-743.5

개선되는 현재, 불확실한 미래로 걱정한다

11월 월간 밴드	1,870-2,030pt
2012년 하반기 밴드	1,750-2,100pt
12MF PER	9.1배
12MF PBR	1.02배
Yield Gap	8.2%P

- ▶ 그리스 구제금융에 미적거리는 독일 기민당도 그리스 디폴트를 원하지는 않는다
- ▶ 미국 재정절벽 우려가 과한 이유 3가지 1) 학습효과, 2) 저금리, 3) 애플 기업이슈
- ▶ 중국 수출 회복, 중국 위안화 강세는 시스템리스크 축소를 의미한다

■ 2013년 독일 총선이 벌써 언급되고 있다

그리스 의회와
그리스 국민은
의견이 다르다

그리스에서도 정치적 불협화음은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재정긴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리스 국민은 반대하고 있다. 11월 7일 그리스 의회는 구제금융 315억 유로를 얻어내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 삭감 등 135억유로 재정지출 긴축안을 통과(153:128)시키고 11월 11일에는 2013년 예산안을 통과(167:128)시켰다. 그러나 재정긴축안을 통과시킨 그리스의회의 집권연정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11월 10일 카파(KAPA)리서치에 따르면 긴축재정을 반대하는 시리자당 지지율은 23.1%로 집권여당인 신민당 20.6%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극우파인 황금새벽당도 지지율 10.4%을 기록하고 있다. 의회밖에서도 재정긴축안에 반대하는 그리스국민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7일 8만명, 11일 1.5만명).

독일은
그리스 구제금융에
소극적

그리스 구제금융을 결정하는 주요의사결정자인 독일은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의회가 7일 재정긴축안, 11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EU, ECB, IMF 트로이카는 12일 긍정적인 그리스 실사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독일은 12~13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제금융 315억유로 지원을 결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림 1] 그리스 재정긴축안 반대 평화시위(7일 8만명, 11일 1.5만명)

그리스
집권연정의 지지율
크게 하락함



자료: 한국투자증권

독일 기민당은
그리스 구제금융에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유로그룹(재무장관회의) 용커 의장은 그리스 실사보고서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독일 재무부 Kothe 대변인은 그리스 실사보고서가 최종본이 아닌 파편화된 초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독일하원(Bundestag) 결의가 필요하기에 12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315억유로 지원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발언했다. 11일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금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간지와 인터뷰했다.

독일 기민당의 선거전략
- 구제금융에
보수적인 태도 유지

독일기민당의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는 선거전략의 일환이다. 독일 기민당은 2013년 9~10월 총선에서 구제금융에 보수적인 정당으로써 지지율을 유지하고자 한다. 10월 19일 독일 메르켈 총리가 EU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은행동맹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지연시킨 이유도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 연정은 정치적 부담이 큰 단일은행감독기관(SSM), 은행동맹 등 안건을 독일총선 이전에 처리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리스의 11월 16일
디폴트 가능성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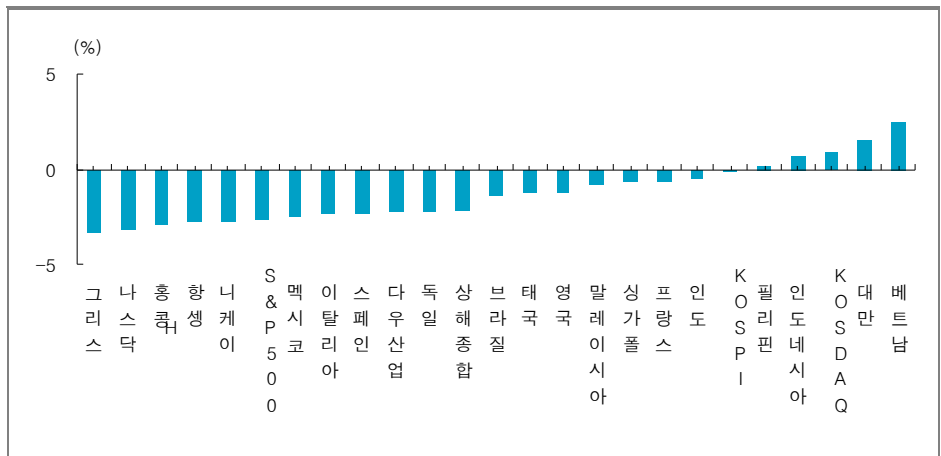
독일기민당은 결국 선거전략차원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315억유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디폴트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회피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16일 그리스국채 50억 유로 만기상환에 따른 디폴트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금주에 그리스 구제금융 315억유로를 집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독일 등 유로존국가들은 그리스가 16일 디폴트를 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 미국 재정절벽 이슈보다 경제지표 회복에 주목한다

미국 국민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양극화되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초기 높은 지지율,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부를 이끄는 허니문(fiscal honeymoon)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나 공화당 롬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2%p라는 근소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운동기간동안 강조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 등 정책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정절벽 이슈가 부각되면서 증시가 하락했다.

[그림 2] 미국 대선 주간 글로벌 주가지수 등락률(11월 5~9일)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애플 하락으로
나스닥 하락 두드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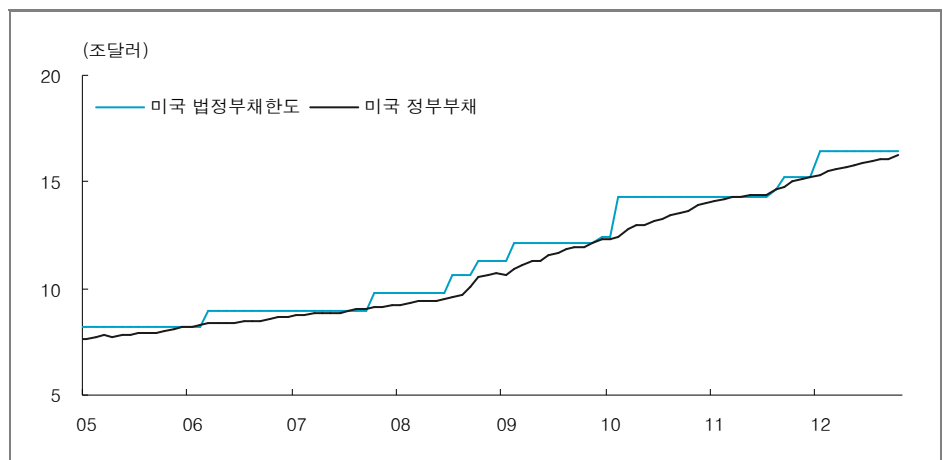
3가지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반영된 재정절벽 우려는 과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소동을 통해서 학습효과가 생겼다. 미국은 12년말, 13년초에 미국정부가 법정부채한도를 소진한다 할지라도 11년 8월과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파국은 피할 전망이다. 11년 8월 파국을 초래했던 극우파 티파티의 지지율은 이미 상당부분 하락했다.

글로벌 1위 채권펀드 핼코도 재정절벽을 회피할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다. 핼코 CEO는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를 경기침체(Recession)로 밀어내지 않을 것이다."라며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림 3] 미국 법정부채한도와 정부부채 추이

미국 법정부채한도
연말, 연초에 도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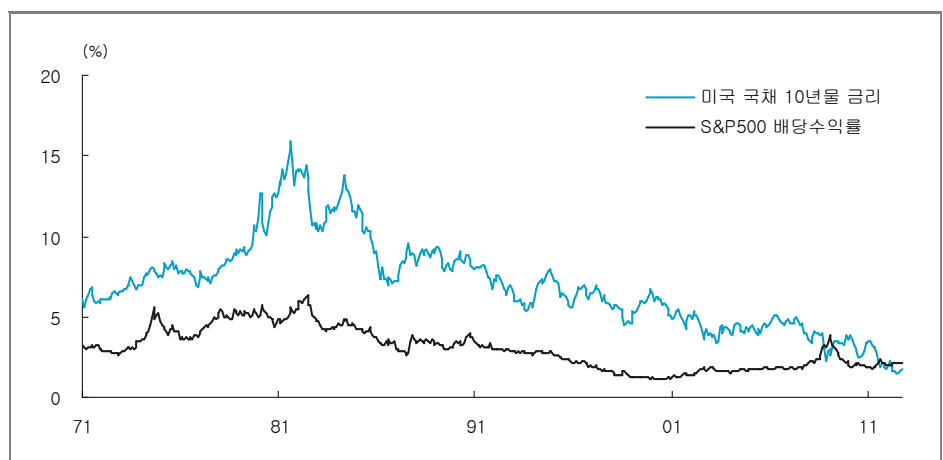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둘째, 미국 국채 금리보다 미국 주식의 배당수익률이 높다. 안전자산 선호현상, QE3 등 통화정책으로 인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극히 낮은 1.6% 수준까지 낮아졌다. 국채금리보다 높은 S&P500의 배당수익률 2.2%는 주식 투자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림 4] 미국 채권 금리와 미국 주식 배당수익률 추이

저금리로 인해
주식 밸류에이션 매력 높음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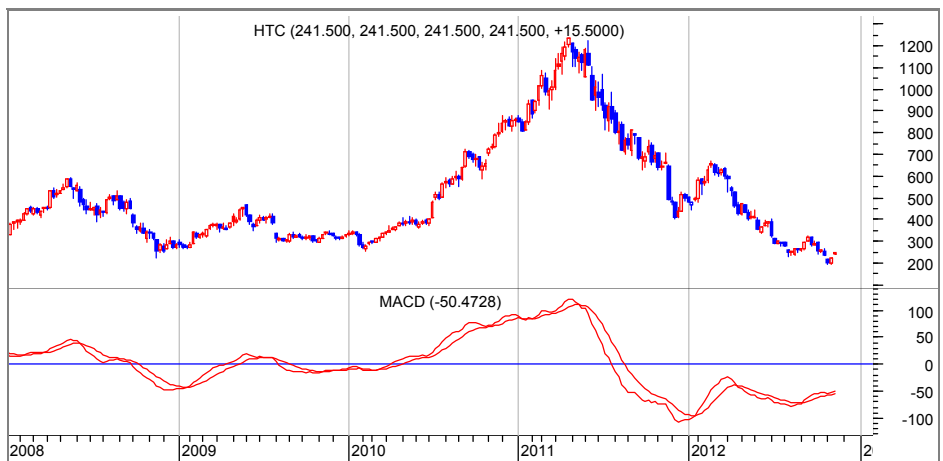
애플은
스마트폰 판매량(Q)을
대표하는 대장주가 아니다

셋째, 애플의 기업이슈가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증시 낙폭을 확대시켰다. 금융, 에너지업종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업종이 S&P500보다 더 하락하는 양상이다. 나스닥업종 부진은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슈 외에도 애플 주가가 기업개별 이슈로 하락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애플의 생산차질, 매출총이익률(P) 하락 가능성은 스마트폰 시장의 판매량(Q) 성장둔화와는 상관관계가 적은 개별기업이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다양한 모델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애플과 디커플링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선진국시장에서 선호하는 고가 스마트폰보다 이머징시장에서 선호하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측면도 애플보다는 삼성전자에 긍정적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은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면서 애플에 납품하는 AP부품가격을 20% 인상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 전념하기 위해서 HTC와의 특허소송을 종료했다. HTC는 애플과의 특허소송 종료에 힘입어 2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미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위협적인 도전상대가 되긴 어렵다.

[그림 5] HTC 주봉 - 스마트폰 판매둔화로 2011년 4월 29일이 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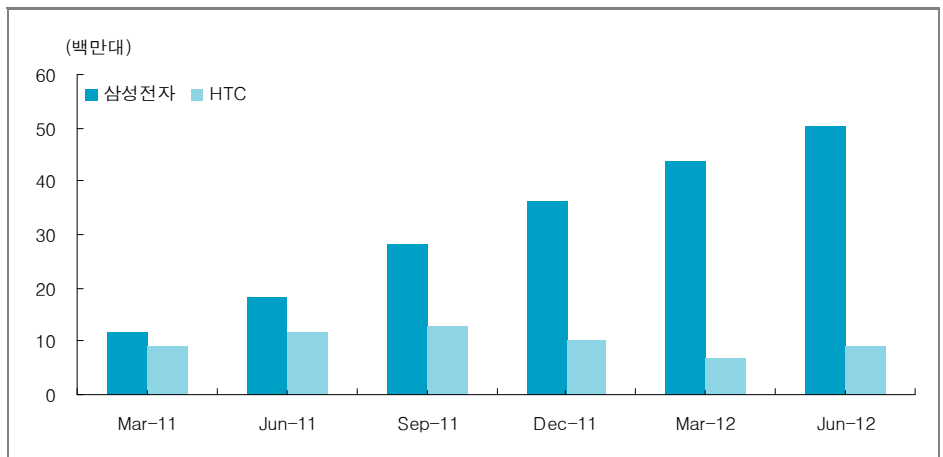
HTC
2011년 2분기를 고점으로
안드로이드 대표주자에서
급격히 밀려났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삼성전자, HTC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

삼성전자
갤럭시S3
2011년 2분기 출시로
압도적인 경쟁력 확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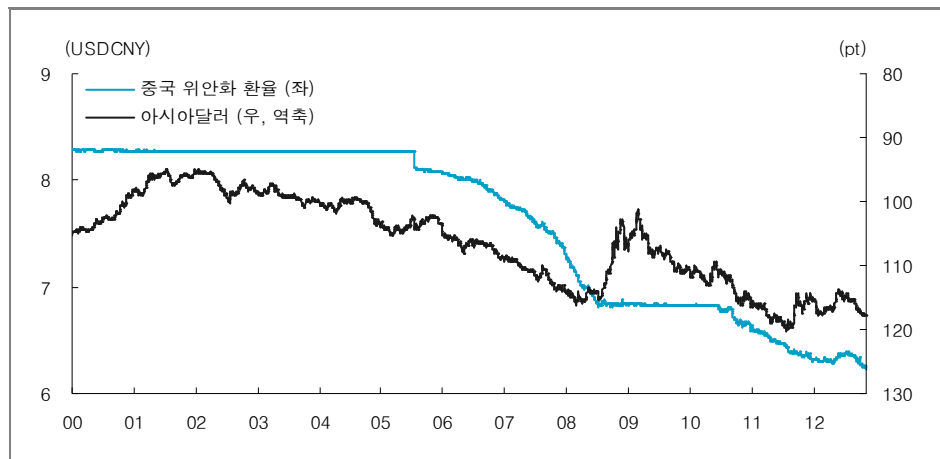
중국 수출 증가,
중국 위안화 강세시
원화도 강세가 나타날 전망

위안화 강세 국면에서는
아시아달러 강세

■ 중국 수출이 회복되고 위안화 강세가 나타난다면

중국 수출이 2개월 연속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수출 둔화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위안화 강세도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수출증가에 힘입어 위안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통화가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원화, 채권이 강세가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시스템리스크가 하락하기 때문에 KOSPI의 밸류에이션은 상향될 수 있다. 또 그리스 등 유로존재정위기나 미국 재정절벽 이슈는 경제지표 회복에 비하면 불확실한 우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7] 중국 위안화 환율과 아시아달러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ppendix

— 전주 주요일정

날짜	국가	내용
11/07	한국	오바마 재선에 KOSPI 0.49% 상승, 셰일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와 헬스케어 관련주가 급등
11/07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50%, 공화당 롬니 후보 48%로 재선 확정,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
11/07	한국	E1,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중동에 편중된 수입처를 다변화, 2014년부터 분기당 4.5만씩 매년 18만t 수입할 예정
11/07	한국	원달러화환율, 1085.4원에 마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소식에 원화 강세 이어져
11/07	미국	다우산업평균, 2.36% 급락한 1만2932.73으로 마감, 오바마 대통령 재선으로 BoA 등 금융주 하락세 두드러져
11/07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 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절벽 합의 불확실성 높아짐, 6,000억 달러 재정 긴축 우려
11/07	미국	공화당 베이너 하원의장, 민주당이 재정 지출 축소에 동의한다면 재정절벽 회피하기 위한 협상 시작할 예정
11/07	미국	애플, 주당 558달러로 마감, 9월 21일 705.07달러 대비 21% 하락, 아이폰5 생산차질, 경영진재편 등 우려 높음
11/07	그리스	그리스 의회, 향후 2년간 135억유로 재정지출 긴축안을 통과시킴, 구제금융 가능성 높아짐
11/08	한국	GS건설, 3분기 영업이익이 492억원, -73.8% YoY, 주택 대손충당금 반영이 없음에도 실적 크게 부진함
11/08	한국	엔씨소프트, 블레이드스울 매출 예상치 하회 등으로 약세, 또 유상증자 루머가 부각되면서 추가 하락
11/08	한국	웅진홀딩스,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 MBK파트너스 13년 1월 인수완료 예정
11/08	인도	인도 내 일본계 기업 2008년 438개사, 2011년 812개사, 2012년 10월초 926개사로 증가했다고 교통통신 보도
11/08	EU	ECB 드라기 총재, 기준금리 동결, 스페인 등 요청시 채권매입프로그램(OMT) 수행 준비, 취약한 경기 우려
11/08	미국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가 35.5만건, 예상치 36.5만건 하회, 허리케인 샌디 여파로 신청건수 감소
11/08	미국	9월 무역수지 415억달러 적자, 예상치인 450억달러 적자보다 규모 축소됨, 수출 3.1% MoM, 1,870억달러
11/08	미국	맥도널드, 10월 매출 1.8% MoM, 9년 만에 감소, 미국, 유럽, 일본 등 고객방문 감소 두드러져
11/08	미국	프라이스라인, 경쟁사 카약 18억 달러에 인수, 주당 가격은 40달러로 현재가 31.04달러를 크게 상회함
11/08	한국	현대차,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 과장 사태 관련 집단소송, 소송규모는 7.75억 달러
11/09	한국	한국은행 금통위 11월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 국내 경기여건 소폭 개선,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
11/09	중국	중국 CPI 10월 1.7% YoY, 예상치 1.9%, 9월 1.9% 하회, PPI 10월 -2.8%, 예상치 -2.7% 하회
11/09	한국	한세실업, 갭 등 SPA(스파) 고객사 매출성장에 힘입어 고성장 지속될 전망, 재고부담도 낮아
11/09	한국	녹십자, 멀티도즈(Multi-Dose) 계절독감백신 지씨플루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심사(PQ) 승인 획득
11/09	한국	CJ헬로비전, 상장 첫날 공모가 16,000원 하회, 일반 청약 미달사태의 여파로 15,500원으로 마감
11/09	한국	한독약품, 사노파-아벤티스와 지분관계 정리, 한독약품 신용등급 하향조정됨
11/09	그리스	그리스, 13일 단기물 국채 31억유로 발행 예정, 단기국채 발행 실패시 디폴트 발생 가능성
11/09	미국	소셜커머스업체 그루폰,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 하회, 주가 29.6% 하락, 매출 성장 둔화
11/09	미국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정절벽 차주 논의할 예정,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계층은 증세, 20만달러 이하 감세 연장
11/09	미국	존 베이너 미 공화당 하원의장, 재정절벽 논의 환영, 다만 부자 증세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
11/09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1월 예비치 84.9, 10월 82.6, 예상치 82.9 상회, 휘발유가격 하락, 주택가격상승, 고용회복 등 긍정적
11/10	미국	오바마 대통령,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등 의회지도부와 11월 16일 재정절벽 관련 논의할 예정임
11/10	EU	유럽의회, EU집행위원회 2013년 예산안 6.8% 증액, 2012년 90억 유로 추경안 협상결렬, 13일 재논의 예정
11/11	중국	중국 10월 수출증가율 11.6%, 2개월 연속 상승, 다만 상무부장은 2012년 수출증가율 10% 달성 어렵다고 발언
11/11	그리스	그리스 의회, 2013년 예산안 통과, 12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의 구제금융 자금지원 결정 기대
11/11	그리스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12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차기분 집행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예정
11/11	미국	애플, HTC는 공동성명을 통해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 중단, 10년 동안 크로스라이센스 체결 발표
11/11	스페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루발카바 야당 대표, 12일 은행 주택 압류 중단 협의할 예정
11/12	대만	HTC, 애플과의 특허소송 종료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6.86% 상승(대만 상한가 기준치 7%)
11/12	한국	LG디스플레이, 일징디스플레이 주가 강세,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고부가가치 패널 수요 증가, 업황 개선 기대
11/12	한국	삼성전자, 애플향 AP칩의 가격 20% 인상, 조선일보 보도, 애플과 협력관계 약화
11/12	한국	태광 실적소크, 3분기 영업이익 105억원, 예상치 166억원 하회, 일시적 비용 발생 및 고수익 수주 감소
11/12	한국	조선업종, 그리스 구제금융 지연, 업황 부진 전망에 동반 약세, 현대중공업, STX조선해양 등은 52주 신저가
11/12	일본	일본 3분기 GDP -3.5% YoY, 내수시장 부진, 중국과의 영토분쟁으로 수출도 감소함
11/12	중국	위안화 신규대출 10월 5,052억위안, 예상치 6,000억 위안 하회, 기업 대출 감소
11/12	중국	후진타오 주석, 시진핑 부주석에 군사위 주석까지 승계하며 완전히 권력을 이임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11/12	그리스	윤커 유로그룹 의장, 트로이카의 그리스 실사보고서 "긍정적"이라고 평가, 그러나 독일 재무부는 추가검토할 예정

국내경제 Chartbook: 제조업보다 양호했던 서비스업

- ▶ 10월 수출, 자동차 업종 파업에 따른 하락 폭 일부 만회, 전기전자업종 양호한 흐름 보여
- ▶ 9월 생산, 제조업보다 양호했던 서비스업, 도소매업과 금융업 전년 대비 호조
- ▶ 9월 소매판매, 추석효과로 인해 반등. 주말 업무 재개에 대형마트 판매 실적 일시적 반등

■ 자동차 및 전기전자 업종 양호한 흐름, 조선 및 기계업은 여전히 부진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 반등하며 4개월 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났고 수입 또한 8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업종과 석유 업종 호조가 10월 전체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주요 자동차 생산 업체의 파업으로 8월에 21.6% 급감했던 자동차 수출이 9월 이후 반등했으나 아직 하락 폭을 만회하진 못한 모습이다. 선박 업종은 10월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 BSI 조선업 현황과 신규수준전망이 기준치인 100을 한참 밑돌고 있어 업종 향방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 제조업보다 양호했던 서비스업, 보험업 활동지수 전년 대비 16.8% 급증

9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5% 위축된 반면 서비스업 활동은 2.5% 확대됐다. 금융업과 도소매업은 전년 대비 호조를 보였으나 임대업 제외 부동산업은 부진한 모습이었다. 금융업 중에서는 보험업 생산 확대가 두드러졌다. 보험업 활동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8%나 확대되었으며 이는 2010년 3월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이는 2013년부터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보험료 금액이 큰 즉시연금 절판 마케팅을 펼쳐 관련 보험료가 급증했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9월 소매판매 반등, 대형마트 매출 반등은 일시적 현상일 것으로 판단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재별로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비내구재 중 식료품의 판매 실적은 경상지수 기준 17%나 급증했는데 이는 추석효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마트 판매 실적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개선됐다. 대형마트 업체들이 제기한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8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주말 영업을 재개된 탓이다. 그러나 해당 시(市)가 조례안을 바꿔 대형마트 주말 휴업 의무화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여 8~9월에 걸친 대형마트 실적 호조는 단발성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소매업자들의 업종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BSI가 11월에 급락하며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점이 10월 소매판매가 재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지표 개선 및 정책호재로 상해증시 강세 전환

- ▶ 중국 인민은행, 10월 위안화 신규대출 5,052억 위안, 13개월 만에 최저(YoY -816억 위안)
- ▶ 중국 증감회, RQFII 투자한도 2,000억 위안 확대 방침
- ▶ 증감회 주석, “당분간 국제판 출범 계획 없어, IPO 인가제→등록제 전환 루머도 사실무근”

상해증시 강세 전환

항공, 유틸리티, 부동산과

해운주 강세 주도

정책호재로 증권주 급등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6거래일 만에 강세로 전환했다. 거래금액은 421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에 비해 줄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의 10월 수출지표가 예상을 상회한 것이 호재였다. 수출 외 생산과 소비, 투자지표 모두 전망치를 웃돌며 경기가 저점을 지나 안정세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규대출의 경우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항공(+2.3%), 유틸리티(+2.1%), 부동산(+2.1%), 해운(+1.5%), IT하드웨어(+1.4%), 은행(+1.4%), 제지(+1.2%), 비철금속(+1.1%), 자동차(+1.1%), 방직/의류(+0.8%), 기계(+0.7%), 석탄(+0.6%), 철강(+0.5%), 정유/화학(+0.4%) 등이 강세였다. 그 외 증권감독위원회가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 투자자(RQFII) 투자한도를 2,000억 위안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혀 10월 실적 부진으로 최근 급락했던 주요 증권주가 큰 폭 반등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배당세 공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증권주에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음식료는 약세를 지속했고 시멘트, 제약, 석유/천연가스 등의 업종도 내렸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약세 지속

시멘트, 광업, 기계주 큰 폭

하락. 통신장비와 철도건설

주는 상승

홍콩H지수는 소폭 내려 사흘 연속 약세로 마감했다. 중국 경제지표 호조와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정책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절벽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홍콩 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홍콩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을 언급해 불안심리가 확산됐다. 지수 변동폭은 크지 않았으나 업종별로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시멘트, 광업, 기계 등 최근 상승폭이 컸던 업종이 2% 이상 급락했고 대표 종목인 중국건설자재, 안휘콘치시멘트와 중연중과는 각각 5.0%, 3.4%, 3.1% 급락했다. 반면 통신장비, 철도건설 등 정책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강세를 보였고 북경과 상해시 전기차 지원책 발표로 BYD가 5.3% 급등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1/12(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79.27	0.49	-1.64	0.50	-5.46
홍콩 H	10,443.47	-0.11	-3.02	-1.31	5.10
인도 SENSEX	18,655.69	-0.15	-0.57	0.81	20.71
러시아 RTS	1,393.52	-0.31	-3.51	-2.82	0.84
브라질 보베스파	57,357.71	-0.29	-1.76	0.51	1.06
베트남 VN	388.62	0.49	3.01	0.05	10.54
MSCI 이머징마켓	990.98	-0.44	-0.98	-0.44	8.14

주: 12일 오후 5시 2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글로벌 경기 우려감에 코스피 3일 연속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10일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

- 11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가 5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며 미국 증시가 강보합세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는 1,900P선을 이탈하며 출발. 사흘 연속 매도세를 보인 외국인이 주가 하락을 주도했으나, 연기금과 국가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며 낙폭을 축소, 1,900P선을 지켜내며 마감. 한편, 장중 발표된 일본의 3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임. 한편, 코스닥은 9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520P선에 안착에 성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파스퇴르분유의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 소식에 롯데삼강이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삼성전자로의 물품 공급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우전앤한단도 신고가를 기록.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행사인 '지스타'의 폐막 이후 모바일 게임에 대한 관심 한층더 높아지며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으며, 조명 가격 하락 및 백열등 규제 정책 등으로 LED 조명시장의 성장성이 부각되며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임. 반면,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태광, 일진머티리얼즈, 디케이락 등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롯데삼강(002270) ▶745,000(+7.19%)	중국 분유시장 진출 소식에 신고가 경신 - '금홍수출입유한공사'와 파스퇴르분유 브랜드 그랑노블의 중국 수출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소식에 신고가 경신 - 현재 중국 분유시장은 연간 9조원 규모로, 이 중 수입 브랜드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음,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국산 분유 유해물질 사건으로 수입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우전앤한단(052270) ▶6,300(+6.78%)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로서, 삼성전자에 하반기 신규로 제품 공급함에 따라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연일 강세 속 신고가 경신 - RIM, 화웨이, 팬택, 소니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케이스 매출비중 증가로 2013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
게임주	‘지스타’ 효과에 힘입어 강세 -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2012’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폐막 후 모바일 게임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며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액토즈소프트(052790, +10.66%), 게임빌(063080, +9.34%), 컴투스(078340, +7.72%), 위메이드(112040, +5.71%), 조이맥스(101730, +3.67%) 등 강세
LED 관련주	LED 조명시장의 본격적인 성장 기대감에 강세 - LED 조명시장은 2015년 41조원 규모로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추진중인 백열등 규제 정책 등에 따른 성장 기대감에 강세 - 인텍플러스(064290, 상한가), 파인테크닉스(106240, +6.58%), 사파이어테크놀로지(123260, +6.02%), 한성엘컴텍(097950, +5.41%), 아이엠(101390, +5.21%)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엠케이전자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엠케이전자 (033160)	4,495 (+7.4)	4,185 (11/02)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당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4,750 (+2.1)	14,450 (11/02)	-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CJ E&M (130960)	30,050 (+5.3)	28,550 (10/19)	- 모바일 기기 확산과 유통채널 다양화로 인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콘텐츠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게임, 영화, 방송, 음악 및 공연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내재 -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신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출시, 방송 부문의 프로그램 경쟁력, 다수의 영화 라인업, 비용 통제 등을 감안할 때 4분기 실적 개선 기대 유효
골프존 (121440)	54,000 (-3.6)	56,000 (10/18)	- 스크린골프 라운딩수 증가와 유료라운딩을 상승으로 네트워크 매출 호조,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 버전의 양호한 매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또한 골프존 아카데미, 골프존 마켓 등 기존 신규 사업 외에 무료 필드 부킹과 디지털 캐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추가 수익원 발굴 노력을 주목할 필요
농심 (004370)	255,000 (-6.9)	274,000 (10/10)	- 한국물 라면의 퇴조, 적극적 신제품 출시 효과, 시장경쟁 완화, 경쟁사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3분기 라면시장 점유율은 66.1%(2분기 6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영업이익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프리미엄 라면을 중심으로 한 라면시장의 성장 가능성, 고가품 비중 확대, 이익 가시성 강화, 규제 리스크 완화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녹십자 (006280)	162,000 (+4.5)	155,000 (9/25)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기반 하에 바이오 의약품,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성장 모색 - IVIG(면역결핍치료제) 및 그린진-F(유전자 재조합 혈우병 치료제)의 미국 임상3상 진입, 태국 혈액제제 플랜트 수출, GC China(홀딩스 자회사)을 통한 적수출 확대 등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 지속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골프존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영이엔씨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영이엔씨 (065570)	7,140 (-1.4)	7,240 (11/07)	46	11	9	1,023	7.0
- 방산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선박안전 관련 규제 강화(Solas협약, 어선법), 일본 및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안정적인 재무구조, 우호적인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리레이팅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345,000 (+3.5)	1,299,000 (10/30)	203,704	28,800	22,831	151,499	8.9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최근 갤럭시노트10.1의 호평에 힘입어 태블릿의 경쟁력 부각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57,000 (-1.2)	260,000 (10/23)	2,377	633	503	11,428	22.5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301,000 (+7.9)	279,000 (9/27)	3,434	225	696	70,906	4.2
-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올해 1월에는 에버랜드 주식 매입)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씨유메디칼 (115480)	16,000 (+8.8)	14,700 (9/20)	28	8	7	1,164	13.7
- 독일, 일본 등 선진시장에 해외법인을 신설해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일반인용 심장충격기) 수출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로 향후 수출 본격화 예상 - AED 구비 의무화 대상 확대,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망 확대, 재활치료기 보급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 잠재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305,500 (-6.3)	326,000 (9/17)	24,006	2,177	1,627	22,136	13.8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관,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3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건자재: 실적 발표 후 투자전략- 이익 추정이 상향 중인 업체는?

■ Idea 1: 마진 관리 가능한 업체로 종목 압축, 특히 이익추정이 상향 중인 대우건설 주목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다. 대부분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매크로 불안이 더해져 투자 포인트가 수주보다 이익 가시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향후 1) 원가 관리능력, 2) 수주의 질적 측면이 강조되며 다변화된 수주 전략이 핵심가치로 부상할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top picks로 현대건설을 차선호주로 유지한다[10/29자 'M/S게임에서 질적 성장으로' 참조]. 1) 업종의 최대 단기 리스크였던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익의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졌고 2) 수주 기대감은 낮아진 반면 연말까지 대기 프로젝트가 112억달러에 육박해 언급한 업체에 제한된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대우건설은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며 peer group내 고PER 주식에서 오히려 저PER 주식으로 분류되었다. 이익 하향폭이 컸던 타 업체 대비 오히려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1,2 참조].

■ Idea 2: 주택시장의 느린 회복 감안시 수혜는 건자재 섹터에 제한

1) 경매 낙찰률 회복, 2)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전월 대비 85% 증가 등 지표 호전을 감안시 주택시장이 최악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회복속도와 레벨이 제한적이고 업계 구조조정이 건자재 섹터에서 더 빠르게 진행됐음을 고려시 일차적 수혜주는 건자재 업체다. 특히 시판(B2C)비중이 높은 LG하우시스의 이익 회복이 더 빠르며 KCC도 시차를 두고 분양시장 회복의 효과를 입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건설사보다 건자재 업체의 투자가 더 매력적이다. 건설사는 1) 미착공 PF 부담이 낮거나 2) 뛰어난 상품개발 능력으로 주택사업 성과가 좋은 대우건설과 현대산업에 제한된 수혜가 예상된다[표 3 참조].

■ Idea 3: 낙폭 과대주, 계속 팔아야 하나?- 역사적 최저 PBR을 감안할 필요

언급한 추천주 외 대부분은 저성장과 원가율 악화로 downside risk가 있다. 그러나 과매도로 싸진 밸류에이션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가장 낙폭이 컸던 GS건설의 경우, 640억원의 준공손실을 반영한 올해와 유사하게 최악의 원가율을 가정해도 내년 PER은 8배(06년 이래 최저 6배)다. 보수적으로 추정한 이익을 기반으로 했기에 아주 싸다고 하기 어렵고 이익 변동성이 커져 PER을 믿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역사적 최저인 0.6배에 도달한 PBR을 참고하자. 이익 개선의 확실한 시그널 확인 전까지 주가 상승여력은 낮아 보이지만 밸류에이션 지표 감안시 급격한 주가 하락기는 어느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음식료: 12/13년 곡물 재고율 모두 상승→곡물가격 약보합 지속 예상

■ 2012/13년 곡물 재고율 전망치: 소맥, 옥수수, 대두 모두 상승

미국 농무성(USDA)이 10일(현지 시간 9일)에 11월 세계곡물수급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맥, 옥수수, 대두의 2012/13년 재고율 전망치가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12/13년 재고율은 소맥 25.8%(전월 전망치 25.5%), 옥수수 13.8%(13.7%), 대두 23.0%(22.2%)를 기록했다. 11/12년 예상 세계 재고율도 0.1%p 하락한 소맥을 제외 상승 또는 보합을 유지해 소맥 28.4%(전월 전망치 28.5%), 옥수수 15.1%(15.1%), 대두 21.9%(21.6%)를 기록했다.

■ 대두는 미국 작황 개선으로, 소맥과 옥수수도 소비보다는 생산이 상향돼

12/13년 소맥: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생산 전망은 전월에 이어 호주의 건조한 기후가 지속돼 전월대비 1.6백만톤 감소했다. 하지만 소비 전망은 EU-27의 사료용 소비가 대체재대비 가격 강세 및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감소(1.5백만톤)하는 등 전월대비 3.1백만톤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12/13년 옥수수: 기말재고율 예상치가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생산 전망이 과테말라와 러시아의 작황 개선으로 전월대비 0.7백만톤 상향돼 역대 2번째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는 EU-27의 개선 불구, 전월대비 0.5백만톤 상향 조정되는데 그쳐 재고율이 높아졌다.

12/13년 대두: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전월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의 생산량이 강우로 개선돼 세계 생산 전망이 지난달대비 3.3백만톤 상향 조정되었다. 소비는 중국 전망이 상향됐으나 이외 지역 변동이 미미해 2.3백만톤 상향에 그쳤다.

■ 곡물가격 안정, 가격 결정력 개선 감안 시 비중확대 유효

11월 9일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0.4%, +2.6%, -6.3%, -11.2%, 전일대비 각각 -0.3%, -1.8%, -3.2%, +1.2% 변동했다. 우리는 전월 곡물가격의 약보합세를 전망했는데, 대두와 원당은 전월대비 5% 이상 하락했고 옥수수와 소맥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금번 USDA의 전망에서 재고율이 일제히 상향되듯 소비가 정체된 상황에서 특별한 작황 악화 소식이 없어 앞으로도 당분간 곡물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NOAA의 ONI는 전월의 0.25° C에서 0.42° C로 상승해 북반구의 엘니뇨를 예견했으나 곡물투기세력은 역사적 고점에 도달해 하락 전환했다. 음식료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가장 우려했던 미국 대두 작황이 개선되는 등 곡물가격 전망이 우호적이고, 원화강세 수혜, 그리고 최근의 가공식품가격 인상에서 보여지듯 음식료업체의 가격 결정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말~3분기초 상승한 곡물가격이 원재료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내년 상반기에는 소재식품 가격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섹터 내 Top picks는 KT&G, 농심, 오리온 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 E&M(130960)

매수(유지)

목표가: 36,000원(유지)

종가 (11/9): 29,600원

방송 부문 실적 개선 지속, 영화 흥행은 +α

■ What's new: 광고 경기 부진에도 방송 부문 선전

CJ E&M의 3분기 실적은 방송과 영화 부문이 개선을 이끌었다. 매출액은 3,41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방송, 음악 부문 매출액이 각각 10.6%, 45.4%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 부문은 전반적인 광고경기가 부진했지만 '슈퍼스타K4', '응답하라!1997' 등 핵심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광고수익이 6.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32억원으로 1.9% 증가하는데 그쳤다. 매출 호조에도 방송 제작비가 10.3% 늘었고 음악 부문의 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우리 추정치 115억원을 상회했지만 순이익은 우리 예상치를 하회했다. 일부 보유 지분 매각에 따른 매각 손실이 3억원 반영됐고 외환평가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Positives: 견조한 케이블 광고수익과 영화 부문의 호조

3분기 지상파 광고비는 전년대비 13% 감소했지만 CJ E&M의 광고수익은 6%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상파 광고 시장 대비 CJ E&M의 광고수익은 견조한 모습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경쟁력 상승으로 4분기 방송 광고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3% 늘어나면서 4분기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 부문의 매출액은 외화 라인업 부재와 기저효과(11년 6월말 트랜스포머 개봉)로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했으나 '연가시', '광해'의 흥행과 이익률이 높은 해외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4분기에도 '광해', '늑대소년' 등 흥행작을 통해 영업이익 91억원을 달성하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Negatives: 게임의 부진 지속

게임 부문은 '서든어택' 매출기여도 감소, 신규 게임 출시 지연, 마케팅비용 증가로 29억 적자를 기록했다. 신규 게임은 12년 말부터 13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런칭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게임 부문의 실적 개선은 13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13년 실적 개선을 보자, 매수의견 유지

CJ E&M의 주가는 7월말 최저점 대비 40% 상승한 이후 횡보하고 있다. 방송 광고수익이 견조하고 게임 부문이 2분기를 바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이후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정체되고 있었다. 다만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충족하는 수준이었고 12년을 바닥으로 13년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13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0.6%, 82.1% 증가하고, 11년부터 향후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연평균 9.2%, 7.6%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CJ E&M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6,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BITDA에 목표 EV/EBITDA 3.8배(해외 미디어 업체의 평균 40% 할인, 12개월 forward 기준)를 적용해 산출했다.

(단위: 십억원, %, %p)

	3Q12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369.4	341.3	(7.6)	354.9	3.1	7.7	1,385.0	1,420.1
영업이익	11.5	13.2	14.7	13.9	38.1	1.9	43.8	47.7
영업이익률(%)	3.1	3.9		3.9			3.2	3.4
세전이익	10.6	7.7	(27.7)		38.0	(10.8)	33.7	
순이익	8.3	4.6	(44.8)	11.4	(86.1)	(58.3)	58.2	65.7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0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삼성생명(032830)

매수(유지)

목표가: 116,000원(유지)

종가(11/9): 92,300원

비가격 경쟁력이 돋보였던 2분기

■ What's new: 일회성 요인들 적은 가운데 2QFY12 순이익 2,594억원으로 발표

2Q FY12 연결순이익은 2,5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4%. 전분기 대비 7% 증가했다. 우리가 프리뷰에서 제시한 전망과 컨센서스(각각 2,400억원, 2,270억원)를 상회했다. 타사와 달리 매도가능증권이익 등 일회성 요인도 적어 이익창출능력에 근접한 실적이다.

■ Positives: 즉시연금으로 입증된 상품 경쟁력 외에 채널의 지배력 강화된 2분기

1) 즉시연금 판매를 통해 동사의 지배력을 확인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과 즉시연금 세제혜택의 종료가 발표된 이후(8월 8일) 즉시연금으로 1.5조원이 유입되었다. 공시이율이 4.4~4.5%였으므로 자산운용의 부담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금리 연동형 상품이므로 회사가 수지를 관리할 수 있고, 수수료수익(2% 수준)과 고액고객 DB 확보 및 추가 판매 가능성의 긍정적 효과를 노리고 주로 은행 채널로부터의 유입을 막지 않은 결과다. 2) 전속 설계사, GA 채널 등 증가가 순조롭다. 여성 위주 전통 FC는 4%(YoY) 늘어난 27,969명인 반면, 기업체 임원 출신의 고령 퇴직자로 구성된 GFC는 2,765명으로 25%(YoY), 젊은 대졸인턴 직원 중심의 UNIV라는 명칭의 설계사도 1,211명으로 101%(YoY) 증가했다. 전속설계사 규모는 32,867명으로 7% 늘어났다. 전속 GA 설계사 규모도 9,287명으로 전년대비 약 1,000명 늘어났다.

■ Negatives: 연금·저축보험 신계약 폭증했지만, 보장성보험 감소 만회에는 부족

1) 보장성보험 신계약 APE는 2Q 중 3,900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시장의 관심이 연금/저축성보험에 쏠린 탓이 컸다. 이 때문에 상반기 중 신계약가치(New business value(NBV))는 5,210억원으로 4% 감소했고, 신계약마진(New business margin)은 23.9%로 5.6%p나 줄었다. 2) 금리역마진이 확대되었다. 9월말 현재 43bp(부담이율 5.69% vs. 운용수익률 5.26%)로 전분기대비 8bp, 상반기 동안 13bp 악화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대응해 공시이율 인하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면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FY13까지 60bp 정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 결론: 주력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와 경기 불확실성 해소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접근

목표가격은 SOP 기반의 PBR 밸류에이션을 적용한 목표가격과 trailing EVPS를 단순 평균해 도출하고 있다. 2분기를 반영한 SOP 기반의 목표가격은 110,000원으로 기존 대비 6,000원 하락했지만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FY11 기준 EVPS는 118,705원). FY12 전망 기준 PBR, PER은 각각 0.89배, 16.0배인데, 세후 계열지분가치를 제외한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각각 0.79배, 8.6배로 해석된다. 부유층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와 경기 불확실성 해소를 염두에 둔 장기적 접근 대상이라는 시각은 변함없다.

	2QFY12				증감률		FY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보험영업수익	4,009	5,668	41.4	-	44.2	56.7	17,755	-
보험손익	643	2,346	264.7	-	178.1	448.2	4,471	-
투자손익	1,438	1,507	4.7	-	7.2	23.8	6,056	-
당기순이익	256	259	1.4	227	7.2	414.3	1,112	1,085
보험지급비율	36.3	26.8	(9.5)	-	(9.4)	(7.3)	34.1	-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네패스(033640)

매수(유지)

목표가: 17,000원(하향)

종가(11/9): 13,400원

자회사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

■ What's new : 예상보다 부진한 3분기 실적

동사가 잠정 공시한 3분기 실적은 우리 추정치, 가이드نس,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했다. WLP*의 생산능력 ramp up효과로 3분기 본사 매출(683억원) 및 영업이익(101억원)이 전분기 대비 각각 5%, 34% 증가하였으나, 동사가 최근까지 제시하였던 가이드نس(매출 730억원, 영업이익 115억원)가 전 사업부(WLP, driver IC* 후공정 등)에 걸쳐 다소 높게 책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예상한대로 잔여 미수채권(20억원으로 추정)이 3분기 손익에 반영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일회성 비용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다.

■ Positives : TSMC의 Apple향 모바일AP공급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TSMC가 2014년경부터 삼성전자가 독점해오던 Apple향 모바일AP*공급에 성공할 경우, 동사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WLP 매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우리는 삼성전자가 자체 모바일AP 탑재비중 확대 및 foundry 사업의 확장으로 Apple 물량 감소분을 상쇄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동사 WLP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견고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동사의 향후 잠재적인 신규 foundry 제품 대응여부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TSMC의 Apple향 공급루머는 계속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 Negatives: 자회사관련 손실에 대한 우려가 실적과 주가에 부담요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회사들(네패스디스플레이 등)의 실적부진 및 재무상황 악화가 부각되는 점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 중이라고 판단한다. 현재(상반기 기준) 적자를 기록 중인 자회사들은 네패스디스플레이, 네패스리그마, 네패스LED인데, 이들의 완전자본잠식 상태(표 3)로 인해 모회사(네패스)의 지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4). 우리는 올해 지분법손실을 69억원을 예상 중(전년 대비 29% 감소)이며, 세전이익의 영업이익 대비 감소폭은 전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표 2). 그러나 위의 문제자회사들이 2013F 실적 턴어라운드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분간 자회사 관련 손실 우려가 동사 주가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결론 : 당분간 주가상승여력은 제한적일 전망

3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향후 보수적인 실적 추정과 자회사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여 목표주가를 17,000원(2013F PER 9배 적용)으로 하향 조정한다(기존 목표주가: 25,000원). 동사 주가는 최근 3개월간 22% 하락하여 밸류에이션(2013F PER 6.8배)이 매력적이지만, 자회사관련 손실(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주가 상승여력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십억원, %, %p)

	3Q12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95	90	(6)	100	5%	30%	349	365
영업이익	11	11	(1)	13	34%	87%	39	44
영업이익률(%)	11.6%	11.8%		13.2%			11.3%	12.0%
세전이익	10	8	(2)	10	62%	81%	29	36
순이익	8	7	(1)	11	68%	90%	23	33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루멘스(038060)

매수(유지)

목표가: 10,000원(상향)

종가(11/9): 7,760원

국내 LED업체들 중 가장 높은 수익성 실현

■ What's new : 견고한 실적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실적이었다. 3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8%, 1% 증가한 1,309억원, 100억원이었다. 매출의 78%를 차지한 LED TV BLU향 매출이 전분기 대비 9%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며 최초로 분기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표 2). 그러나 4분기는 전통적인 재고조정 시즌이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25%, 26% 감소한 982억원, 74억원이 예상된다.

■ Positives : 삼성전자 LED TV의 성장은 2013F에도 계속될 것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LCD TV라인업 내에서 LED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80%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 비중은 2013년에 100%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LED TV비중이 3Q12에 약 90%수준까지 확대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TV수요가 부진한 편(2013F 시장성장률: 5%)이지만, 우리는 삼성전자의 LED TV 출하량이 2013F에도 30% 이상의 견고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여 주요 LED패키지 외주업체인 동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 Negatives : LED조명향 사업의 매출 확대가 필요하다

LED TV향 매출은 2013F에 성장의 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즉 LED조명이 향후 동사의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동사의 LED조명부문 매출은 올해 469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전사 매출 기여도는 아직 11%수준이다. 그러나 동사는 주력시장인 일본 외에 향후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어 2013F에도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매출 798억원, 전년대비 70% 증가).

■ 결론 : LED업종 내 최선호주

우리는 LED산업에 대한 보수적인 업종투자 의견을 유지한다. LED조명이 점진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업종 내 수익성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종 내 최선호주인 루멘스는 견고한 삼성전자 LED TV관련 사업과 업종 내 가장 높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2013F TV부문 실적을 상향 조정하여 목표주가를 10,000원(12MF PBR 2.7배 유지)으로 올린다. 최근 실적의 호조로 지난 3개월간 주가가 24% 상승 중인데, 4분기에는 재고조정에 따른 여파로 실적 감소(표 2)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연말 또는 1Q13F 초가 더 적절한 투자시점일 것으로 예상한다.

(단위: 십억원, %, %p)

	3Q12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29	131	1	123	8%	53%	435	429
영업이익	9	10	1	9	1%	179%	32	31
영업이익률(%)	7.1%	7.6%		7.4%			7.3%	7.2%
세전이익	NA	9	NM	11	0%	428%	31	33
순이익	NA	NA	NM	9	NM	NM	25	27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태광(023160)

매수(유지)

목표가: 34,000원(하향)

종가(11/9): 29,000원

재반격을 위한 힘 모으기

■ What's new : 기대치 하회하는 실적

3분기 영업실적은 시장과 우리의 기대치를 하회했다. K-IFRS 개별기준 매출액은 934억원(+52.6% YoY)으로 우리의 예상치인 919억원에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은 105억원(-23.9% YoY)을 기록해 추정치 166억원을 37% 하회했다. 또한 FnGuide 기준 컨센서스와도 매출액은 유사했지만 영업이익은 32%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률은 11.2%로 전분기 15.6%대비 4.4%p 악화되었다. 공장 이전비용 및 상여 지급으로 비용이 증가했고 제품 믹스 개선이 지연된 것도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또한 지속적인 후판가격 하락은 carbon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사의 수익성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Positives : 매출 성장 지속

여름휴가 등으로 생산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전분기대비 8.9% 성장했다. 화전 산업단지내 엘보우 전용공장이 3분기부터 가동되어 생산설비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덕분이다. Capex가 마무리되어 현금흐름도 개선될 전망이다. 7월 중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3분기말 현금 보유량은 230억원으로 2분기말 260억원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연말까지 3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 Negatives : 일시적 비용 증가 및 제품믹스 개선 지연으로 수익성 악화

설비 확장에 따른 공장 이전비용 10억원과 여름휴가 및 추석상여 22억원이 반영되어 비용상승으로 이어졌다. 또한 달러대비 원화가 2분기대비 3% 절상되어 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발생했던 무상 교환 이슈로 인한 생산능력 부족으로 최근 고수익성 단납기(Spot) 수주가 부족했던 것도 경쟁사대비 수익성 개선이 더딘 요인이다. 3분기 재질별 매출은 carbon 60%, stainless 30%, alloy 10%로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태광은 현재 수주잔고에서 수익성이 낮은 carbon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stainless와 alloy 비중을 높이기 위해 수주전략을 재편하는 과정에 있어, 이러한 회사의 전략이 실적에 반영되는 내년 2분기부터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 결론 : 내년 2분기까지 성광벤드와의 실적 gap 메우기 어려워...

경쟁사인 성광벤드대비 수주잔고의 수익성이 낮아 실적 gap이 내년 2분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보이며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매수의견을 유지하나 수익예상 하향조정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38,000원에서 34,000원으로 하향한다. 목표주가는 12MF EPS 2,390원에 mid-cycle PER 14배를 적용했다.

	3Q12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92	93	1.7	91	8.9	52.6	352	355
영업이익	17	10	(37.0)	15	(21.6)	(23.9)	48	60
영업이익률(%)	18.1	11.2	(6.9)	17.0	(4.4)	(11.3)	13.5	16.9
세전이익	17	10	(41.2)	NA	(23.3)	(40.7)	47	
순이익	13	8	(40.1)	12	(23.4)	(38.7)	37	46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05(월)	11/06(화)	11/07(수)	11/08(목)	11/09(금)	11/12(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08.22	1,928.17	1,937.55	1,914.41	1,904.41	1,900.87
	등락폭	-10.50	19.95	9.38	-23.14	-10.00	-3.54
	등락종목						
	상승(상한)	373(8)	496(4)	410(4)	270(11)	362(4)	391(7)
	하락(하한)	447(2)	335(3)	401(3)	534(1)	446(5)	436(4)
	ADR	82.07	83.26	87.20	85.84	84.13	86.25
	이격도						
	10 일	99.98	101.02	101.39	100.23	99.64	99.41
	20 일	99.01	100.18	100.69	99.54	99.09	98.97
	투자심리	50	60	70	60	60	5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337	540	550	654	629
	거래대금	(십억 원)	4,538	4,501	4,580	5,304	4,745
	코스닥지수	515.14	517.53	518.45	519.04	519.90	521.43
	등락폭	1.77	2.39	0.92	0.59	0.86	1.53
	등락종목						
	상승(상한)	478(8)	481(10)	459(12)	382(4)	446(6)	452(9)
	하락(하한)	439(1)	440(3)	464(2)	536(4)	469(5)	475(3)
	ADR	82.24	81.67	84.50	83.45	81.63	85.88
	이격도						
	10 일	100.71	101.31	101.61	101.71	101.59	101.36
	20 일	98.99	99.67	99.99	100.26	100.62	100.99
코스닥	투자심리	70	70	70	80	90	100
	거래량	(백만 주)	382	459	455	455	406
	거래대금	(십억 원)	1,697	2,113	1,830	1,778	1,645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68.2	705.3	846.9	160.6	81.5	185.7	48.0	28.2	160.1
	매도	2,131.3	859.6	744.5	165.9	94.7	218.7	48.9	19.8	117.2
	순매수	37.0	-154.2	102.4	-5.3	-13.2	-32.9	-0.8	8.4	42.9
	11 월 누계	390.3	-113.0	0.2	207.1	0.6	-88.5	7.9	36.4	286.8
	12 년 누계	-10,686.9	13,564.9	2,055.7	1,790.9	2,563.0	-5,181.4	-13.4	454.1	2,527.3
코스닥	매수	1,676.6	74.5	135.6	25.1	15.0	55.5	10.7	5.4	20.0
	매도	1,719.1	63.0	102.3	17.3	13.6	33.6	8.5	3.8	22.8
	순매수	-42.5	11.5	33.4	7.8	1.4	22.0	2.2	1.6	-2.8
	11 월 누계	-48.1	-64.2	141.3	56.5	2.1	57.0	-13.1	9.6	24.7
	12 년 누계	1,044.6	50.3	-351.4	108.8	83.1	-557.3	-208.4	-28.7	246.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6,748	운수장비	-32,134	전기,전자	42,014	운수장비	-15,950
통신업	10,081	화학	-11,363	서비스업	10,251	금융업	-5,163
의약품	7,479	유통업	-8,507	전기가공업	7,329	화학	-4,659
KODEX 200	55,253	엔씨소프트	-10,621	삼성전자	33,181	현대중공업	-12,856
삼성전자	9,741	현대중공업	-8,356	SK	8,338	기아차	-8,278
SK	6,706	제일모직	-7,472	한국가스공사	4,466	S-Oil	-5,749
삼성전기	5,173	기아차	-6,835	삼성전기	3,325	KB금융	-4,088
유한양행	5,005	현대건설	-5,700	현대모비스	3,232	기업은행	-2,87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4,253	건설업	-1,858	전기,전자	3,674	건설업	-8,598
전기,전자	3,131	화학	-513	통신업	2,606	화학	-8,406
금융업	1,302	섬유,의복	-352	음식료품	1,453	기계	-2,702
삼성전자	3,413	GS건설	-2,038	KODEX 200	7,230	GS건설	-4,083
두산	2,590	제일모직	-1,459	NHN	2,797	대림산업	-3,128
KODEX 200	1,035	현대모비스	-838	TIGER 200	2,607	제일모직	-2,390
SK	739	LG전자	-611	SK텔레콤	2,507	두산중공업	-1,877
하나금융지주	687	현대차	-579	현대차	2,255	CJ제일제당	-1,867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95,838	운수장비	-30,555	운수장비	28,973	전기,전자	-69,564
서비스업	40,108	화학	-21,734	전기가공업	4,976	서비스업	-38,992
통신업	18,586	건설업	-15,247	기계	4,870	금융업	-18,472
삼성전자	73,633	제일모직	-15,432	현대차	23,877	삼성전자	-65,553
KODEX 인버스	15,784	기아차	-15,336	SK하이닉스	8,137	GS건설	-17,602
SK	14,836	현대중공업	-13,526	POSCO	7,990	KODEX 200	-13,089
KODEX 200	13,383	POSCO	-9,527	현대모비스	6,208	SK이노베이션	-10,745
SK텔레콤	10,695	두산중공업	-9,463	기아차	6,103	삼성화재	-9,499
삼성전기	9,628	엔씨소프트	-9,258	S-Oil	4,569	하나금융지주	-9,026
하나금융지주	7,313	현대건설	-8,538	삼성물산	4,418	NHN	-7,845
유한양행	7,015	삼성물산	-7,833	한국전력	4,153	SK텔레콤	-7,668
GS	6,499	KODEX 레버리지	-7,366	한진해운	3,415	KODEX 인버스	-7,294
NHN	6,235	GS건설	-6,779	현대건설	3,185	SK	-7,03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9,794	금속	-6,305
IT부품	7,971	인터넷	-1,932
통신서비스	4,318	도매	-1,150
컴투스	4,607	성광벤드	-4,058
SK브로드밴드	4,318	태광	-2,201
게임빌	3,784	다음	-1,939
파트론	3,590	심텍	-1,183
비에이치	2,243	네패스	-1,065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1,723	금속	-5,581
사업지원	1,383	인터넷	-1,872
방송서비스	672	디지털컨텐츠	-1,778
하나투어	1,341	성광벤드	-3,702
플렉스컴	1,156	다음	-1,872
이엘케이	648	태광	-1,250
CJ오쇼핑	512	게임빌	-1,219
이녹스	447	비에이치	-86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1,074	금속	-286
디지털컨텐츠	887	음식료,담배	-244
도매	495	IT부품	-237
컴투스	886	에스맥	-415
씨젠	535	뷰웍스	-334
KH바텍	326	비에이치	-297
아이엠	300	플렉스컴	-264
메디톡스	276	매일유업	-262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982	금속	-1,110
오락,문화	666	반도체	-498
기계,장비	593	전문기술	-304
게임빌	1,281	태광	-1,660
멜파스	820	컴투스	-1,134
유비벨룩스	731	코나아이	-530
파라다이스	646	덕산하이메탈	-440
하이록코리아	565	진성티이씨	-388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17,103	금속	-16,027
IT부품	16,875	인터넷	-4,377
통신서비스	5,835	도매	-1,987
컴투스	8,652	성광벤드	-8,333
게임빌	6,103	태광	-7,473
SK브로드밴드	5,868	다음	-4,215
하나투어	4,011	씨티씨바이오	-2,235
파트론	3,249	셀트리온	-1,176
옵트론텍	2,863	이라이콤	-1,153
KH바텍	2,513	심텍	-1,132
멜파스	2,201	네패스	-991
에스엠	2,070	포스코 ICT	-940
파라다이스	1,757	진성티이씨	-908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8,891	반도체	-2,671
인터넷	3,281	사업지원	-2,396
출판,매체복제	1,309	기계,장비	-934
다음	3,172	하나투어	-2,098
파트론	2,165	게임빌	-1,357
플렉스컴	2,160	셀트리온	-1,259
이라이콤	1,589	서울반도체	-1,180
파라다이스	1,361	태광	-997
미래나노텍	1,282	GS홈쇼핑	-908
성광벤드	1,165	SK브로드밴드	-642
오스템임플란트	1,031	에스엔유	-547
에스엠	813	메디톡스	-542
씨젠	774	메디포스트	-54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LG디스플레이	25 일	POSCO	10 일
LG전자	25 일	한라공조	10 일
빙그레	22 일	대상	7 일
효성	19 일	CJ제일제당	6 일
웅진코웨이	16 일	대한항공	5 일
LG	15 일	현대차	5 일
오리온	12 일	올촌화학	5 일
GS	12 일	LS산전	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엘케이	12 일	휴맥스	10 일
이트레이드증권	8 일	이트레이드증권	9 일
파라다이스	7 일	아트라스BX	7 일
메가스터디	6 일	STS반도체	6 일
비에이치아이	6 일	오스템임플란트	5 일
하나투어	5 일	파트론	5 일
포스코케미칼	4 일	포스코 ICT	4 일
서부T&D	4 일	한국토지신탁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88,907	현대차	301,360
KODEX 200	85,305	POSCO	30,436
SK	80,119	호텔신라	24,627
GS	58,320	현대해상	20,650
LG전자	49,577	현대건설	19,350
NHN	48,455	기아차	17,201
SK텔레콤	45,377	CJ제일제당	13,943
하나금융지주	35,745	현대글로벌비	12,760

KOSDAQ			
기	관	외	국 인
멜파스	15,912	파트론	5,077
인터플렉스	12,374	오스템임플란트	4,559
컴투스	11,795	플렉스컴	3,851
SK브로드밴드	8,929	휴맥스	2,806
하나투어	8,046	다음	2,727
코오롱생명과학	6,855	아트라스BX	2,364
파라다이스	5,471	태광	2,209
CJ오쇼핑	3,669	서울반도체	1,871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의약품		16,651	600 17,250
음식료품		13,930	415 14,345
전기가스업		1,749	4,976 6,726
현대차		1,360	23,877 25,237
현대모비스		2,158	6,208 8,366
한국가스공사		3,495	929 4,423
녹십자		3,143	830 3,974
LG디스플레이		331	3,183 3,514
한미약품		1,823	1,587 3,410
하이트진로		861	2,279 3,141
오리온		2,583	362 2,945
우리금융		1,519	1,005 2,523
종근당		1,826	577 2,403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IT부품		16,875	8,891 25,766
디지털컨텐츠		17,103	270 17,372
출판,매체복제		2,336	1,309 3,645
컴투스		8,652	757 9,409
파트론		3,249	2,165 5,414
플렉스컴		1,133	2,160 3,293
파라다이스		1,757	1,361 3,119
유프론텍		2,863	86 2,950
에스엠		2,070	813 2,883
KH바텍		2,513	105 2,619
멜파스		2,201	195 2,396
비에이치		1,537	328 1,864
오스템임플란트		780	1,031 1,81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한진해운홀딩스	22 일	NHN	33 일
한일이화	21 일	하나금융지주	17 일
두산중공업	21 일	SK텔레콤	16 일
동양기전	18 일	LG	14 일
한라공조	15 일	유한양행	13 일
삼성카드	11 일	삼성테크윈	13 일
대한제분	10 일	경방	12 일
세종공업	10 일	조선내화	12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동국산업	12 일	덕산하이메탈	13 일
네패스	7 일	하나투어	7 일
한국토지신탁	5 일	비에이치아이	6 일
태광	4 일	에스엔유	5 일
심텍	4 일	주성엔지니어링	4 일
동양시멘트	3 일	KCC건설	3 일
에스에프에이	3 일	동양시멘트	3 일
하이룩코리아	2 일	오성엘에스티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차	-117,949	KODEX 200	-88,283
KODEX 레버리지	-92,809	NHN	-82,996
엔씨소프트	-74,534	SK텔레콤	-68,133
GS건설	-73,043	GS건설	-48,609
POSCO	-56,002	삼성전자	-45,480
현대중공업	-49,338	하나금융지주	-39,031
기아차	-42,451	LG전자	-36,967
삼성물산	-38,715	SK하이닉스	-34,837

KOSDAQ			
기 관		외 국 인	
네패스	-12,664	셀트리온	-29,886
다음	-9,546	게임빌	-6,374
성광벤드	-9,497	메디톡스	-5,416
태광	-8,011	덕산하이메탈	-5,308
파워로직스	-6,139	하나투어	-4,911
심텍	-5,291	컴투스	-4,090
옵트론텍	-3,167	안랩	-3,001
덕산하이메탈	-2,918	파라다이스	-2,750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21,734	-12,793	-34,527
건설업	-15,247	-16,158	-31,404
금융업	-270	-18,472	-18,741
GS건설	-6,779	-17,602	-24,381
제일모직	-15,432	-4,349	-19,781
현대중공업	-13,526	-677	-14,203
삼성카드	-6,726	-2,876	-9,602
대우조선해양	-5,455	-3,105	-8,560
KODEX 레버리지	-7,366	-87	-7,453
KB금융	-4,249	-243	-4,492
기업은행	-1,436	-2,270	-3,706
금호석유	-2,830	-281	-3,111
일진머티리얼즈	-1,959	-165	-2,124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334	-2,671	-3,005
운송장비, 부품	-273	-78	-351
일반전기전자	-4	-234	-238
태광	-7,473	-997	-8,470
셀트리온	-1,176	-1,259	-2,435
서울반도체	-568	-1,180	-1,749
네패스	-991	-340	-1,332
심텍	-1,132	-25	-1,157
진성티이씨	-908	-109	-1,017
GS홈쇼핑	-28	-908	-937
덕산하이메탈	-666	-228	-894
C&S자산관리	-470	-76	-546
메디포스트	-3	-541	-54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4	18,650
POSCO	30	9,667
엔씨소프트	52	9,244
NHN	31	7,925
SK하이닉스	235	6,010
두산	46	5,717
현대차	22	4,510
삼성중공업	125	4,36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인지디스플레이	147	535
매일유업	15	530
성우하이텍	53	528
에이블씨엔씨	6	527
주성엔지니어링	96	447
파라다이스	22	437
대화제약	38	377
다음	4	329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372	5,862,536
LG전자	43,408	3,338,067
POSCO	9,541	3,115,198
OCI	9,829	1,523,427
현대차	6,513	1,393,772
NHN	3,680	936,651
SK하이닉스	32,281	819,943
현대모비스	2,710	720,95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8,394	769,474
서울반도체	6,209	134,418
에스엠	1,547	100,076
덕산하이메탈	2,780	51,570
게임빌	407	48,332
위메이드	941	47,023
인터플렉스	659	44,832
에이블씨엔씨	453	41,175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전기가스업	1,070	전기,전자	-5,366
통신업	220	운수장비	-4,233
의약품	77	기계	-2,766
우리금융	1,305	LG디스플레이	-3,081
한국전력	1,111	두산인프라코어	-2,408
아시아나항공	384	대우조선해양	-1,388
현대산업	340	대한전선	-1,267
동국제강	325	STX조선해양	-1,253
TIGER 200	317	KODEX 200	-751
신한지주	310	하나금융지주	-692
웅진케미칼	300	삼성중공업	-665
대창	299	웅진홀딩스	-615
SK텔레콤	296	무림P&P	-61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소프트웨어	303	반도체	-797
전문기술	253	비금속	-488
IT부품	236	종합건설	-429
인터파크	267	유진기업	-489
KG이니시스	222	서희건설	-425
원익IPS	148	서울반도체	-364
큐로컴	136	STS반도체	-325
디지텍시스템	124	성우하이텍	-314
루멘스	119	주성엔지니어링	-245
에스텍파마	96	케이디씨	-199
차바이오텐	93	인터플렉스	-125
나노신소재	74	유니슨	-117
다음	65	SKC 솔믹스	-114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06(화)	11/07(수)	11/08(목)	11/09(금)	11/12(월)
외국인	13,564.9	-113.0	-405.1	3.2	129.8	-118.5	106.1	-154.2
기관계	2,055.7	0.2	-8.5	164.3	-33.0	-300.2	23.6	102.4
(투신)	-5,181.4	-88.5	11.6	59.9	53.8	-89.5	55.4	-32.9
(연기금)	2,627.6	251.8	136.4	58.7	10.8	-15.2	31.0	35.1
(은행)	454.1	36.4	48.9	-8.0	4.4	22.7	-1.1	8.4
(보험)	2,563.0	0.6	-32.5	31.6	-17.9	-25.5	31.0	-13.2
개인	-10,686.9	390.3	353.1	-167.0	-106.6	400.7	-134.9	37.0
기타	-4,933.7	-277.5	60.4	-0.4	9.8	17.9	5.2	14.9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1/05(월)	11/06(화)	11/07(수)	11/08(목)	11/09(금)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08.22	1,928.17	1,937.55	1,914.41	1,904.41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782.8	17309.0	17296.7	17602.6	17312.7
(증감액)	2735.7	1996.5	3611.7	69.1	-473.8	-12.3	305.9	-289.9
(회전율)	52.6	51.5	34.2	35.7	38.8	37.8	40.9	37.4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160.1	-677.5	18.9	172.9	-362.9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415.6	4434.0	4461.8	4461.6	4459.0
미수금	240.2	192.3	187.7	110.2	90.1	108.3	95.5	101.2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05(월)	11/06(화)	11/07(수)	11/08(목)	11/09(금)
전체 주식형	95,689	-6,916	-36	44	18	1	-56	37
(ex. ETF)		-9,248	-171	-46	19	-41	-60	7
국내 주식형	68,707	-3,827	72	61	33	19	-37	41
(ex. ETF)		-6,159	-66	-29	35	-23	-41	8
해외 주식형	26,983	-3,090	-108	-17	-15	-18	-19	-4
(ex. ETF)		-3,089	-105	-17	-15	-18	-19	-1
주식 혼합형	10,373	-1,486	-8	-14	11	-6	-4	3
채권 혼합형	19,205	1,179	403	15	17	-8	198	172
채권형	45,983	1,462	698	333	50	-39	265	45
MMF	76,032	21,474	1,189	918	403	360	-962	-81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06(화)	11/07(수)	11/08(목)	11/09(금)	11/12(월)
한 국	12,136	-106	104	3	119	-110	-243	-144
대 만	1,917	173	478	59	148	-44	4	90
인 도	18,636	536	222	43	137	56	-	-
인도네시아	1,738	-281	-15	-54	-71	-34	-1	-
태국	1,573	25	145	-23	-17	-40	22	-
남아공	-716	553	203	63	134	19	-47	-
필리핀	2,024	51	34	19	9	-3	4	4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11/05(월)	11/06(화)	11/07(수)	11/08(목)	11/09(금)	11/12(월)
회사채 (AA-)	4.21	3.32	3.30	3.30	3.28	3.31	3.31
회사채 (BBB-)	10.01	8.71	8.69	8.69	8.67	8.70	8.70
국고채 (3년)	3.34	2.80	2.78	2.78	2.76	2.79	2.79
국고채 (5년)	3.46	2.86	2.85	2.85	2.83	2.86	2.86
국고채 (10년)	3.79	2.99	2.99	2.99	2.96	2.98	2.98
미 국채 (10년)	1.88	1.72	1.75	1.69	1.61	1.61	-
일 국채 (10년)	0.99	0.78	0.76	0.76	0.75	0.74	-
원/달러	1,151.80	1,091.20	1,090.70	1,085.40	1,089.30	1,087.60	1,088.60
원/엔	1,492.00	1,359.00	1,359.13	1,355.56	1,364.00	1,368.00	1,371.00
엔/달러	77.24	80.31	80.25	80.07	79.91	79.52	79.44
달러/유로	1.29	1.27	1.28	1.28	1.27	1.27	1.27
DDR3 1Gb (1333MHz)	0.64	0.64	0.64	0.65	0.64	0.64	-
NAND Flash 16Gb (MLC)	2.81	1.96	1.95	1.95	1.94	1.94	-
CRB 지수	305.30	295.85	297.17	291.49	291.87	292.22	-
LME 지수	3,306.0	3,251.4	3,281.0	3,256.0	3,273.7	3,245.4	-
BDI	1,738	971	947	916	916	940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85.73	88.71	84.44	84.50	86.05	-
금 (달러/온스)	1,566.80	1,683.20	1,691.00	1,714.00	1,726.00	1,730.9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212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1월 6일	252.30	252.90	0.73	0.60	0.63	184,283	104,533	935
11월 7일	253.70	254.05	0.71	0.35	0.55	325,532	101,376	-3,157
11월 8일	250.13	249.45	0.68	-0.68	0.36	252,299	97,319	-4,057
11월 9일	248.69	249.30	0.66	0.61	0.17	194,470	96,334	-985
11월 12일	248.18	249.25	0.62	1.07	0.34	143,117	97,772	1,438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1월 6일	4,212	-4,962	141	-2,646	2,811	81	-138	-1
11월 7일	-1,664	608	1,506	-267	1,075	-78	-97	0
11월 8일	-5,282	3,843	1,157	1,383	-2,457	-44	427	2
11월 9일	1,699	-1,760	426	74	79	-72	-66	0
11월 12일	1,089	32	-1,103	-547	794	-259	-162	-1
누적포지션	-18,166	5,284	12,944	1,978	8,145	-1,190	-822	4,866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1월 6일	623	658	36	560	592	32	63	66	3	6,108	10,000
11월 7일	807	697	-110	627	601	-26	179	96	-84	6,146	9,954
11월 8일	1,211	782	-429	877	665	-213	334	118	-216	6,274	9,862
11월 9일	935	679	-255	726	605	-121	209	74	-134	6,294	9,744
11월 12일	499	555	56	462	446	-16	37	109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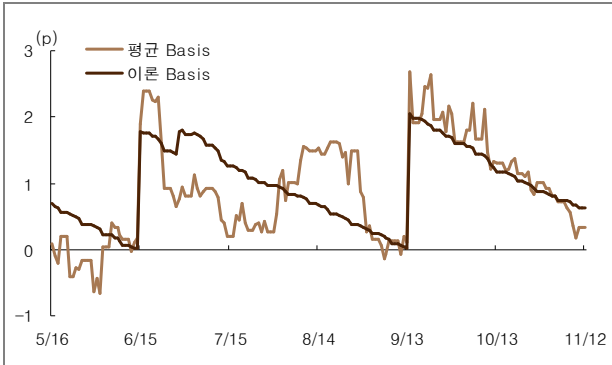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현재가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6.16	2,474	86,073	1.12	260.00	12.05	28	6	14.67
16.35	1,416	68,764	1.65	257.50	10.15	103	7	15.42
16.55	1,494	94,349	2.35	255.00	8.05	422	42	14.51
16.99	980	32,336	3.30	252.50	6.55	1,616	168	15.29
17.25	1,474	11,836	4.40	250.00	5.15	4,915	240	15.60
17.69	468	5,896	5.75	247.50	3.95	7,347	476	15.83
17.99	67	1,677	7.25	245.00	3.00	11,369	451	16.21
18.19	34	428	8.90	242.50	2.33	40,009	614	16.95
19.63	679	928	11.00	240.00	1.76	92,923	1,621	17.48
19.22	2	32	12.80	237.50	1.30	51,758	1,858	17.92
18.74	-2	6	14.75	235.00	1.00	56,427	1,546	1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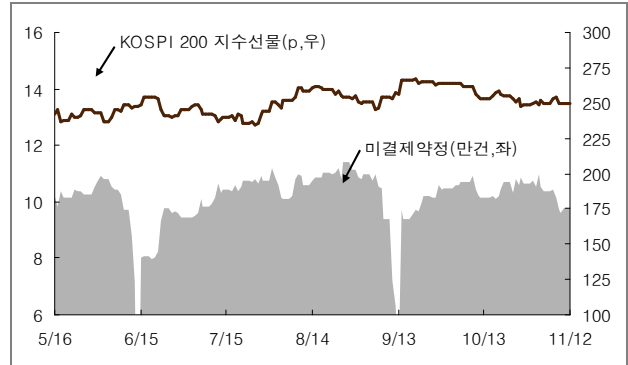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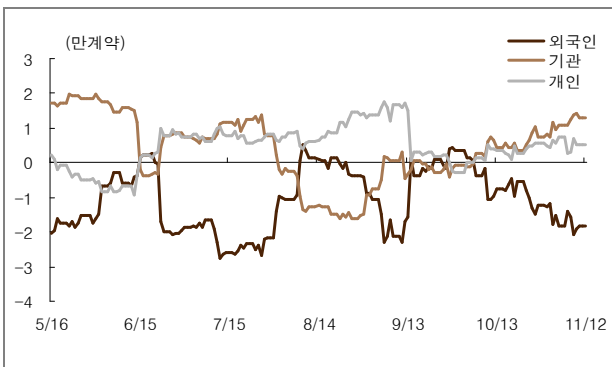
- 평균 Basis: 0.34 (전 거래일 대비 0.17 상승)
- 이론 Basis: 0.62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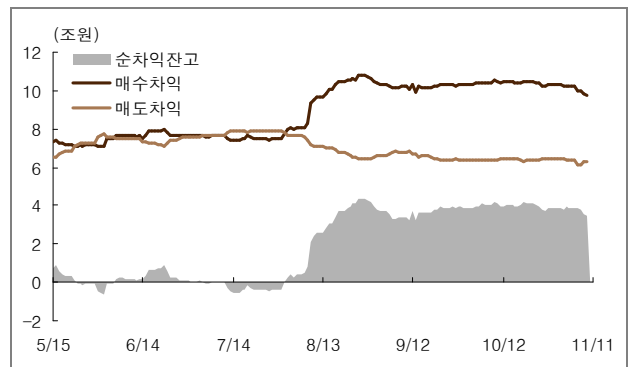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1,438 계약 증가한 97,772 계약
- 선물가격(249.25): 전 거래일 대비 0.0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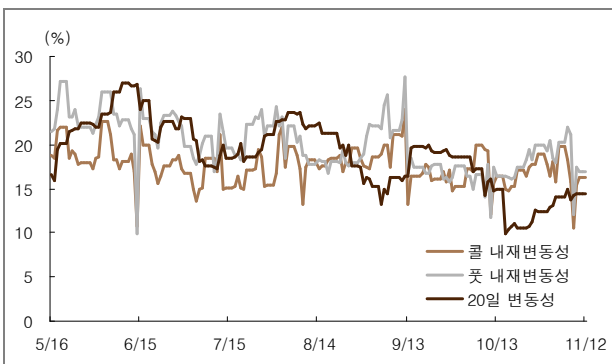
- 외국인: 1,089 계약 순매수
- 기관: 1,103 계약 순매도 / 개인: 32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714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158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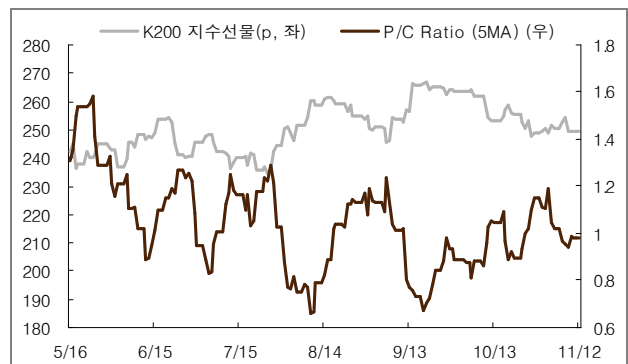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6.3% / 풋 17.0%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4.38%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8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5	6	7	8	9
韓> 10월 외환보유액 (\$323.46B, n/a, \$322.0B) 美> 10월 ISM 비제조업 (54.2, 54.5, 55.1) 유럽> 11월 섀넥스 투자자대지수 (-18.8, -21.0, -22.2) 中> 10월 HSBC PMI 서비스 (53.5, n/a, 54.3) (11/4-5)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멕시코시티)	美> 대통령 선거, 양원 의회 선거 호주> 호주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3.25%, 3.00%, 3.25%)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5.0%, n/a, -4.8%) 9월 소비자신용지수 (\$11.365B, \$10.175B, \$18.123B) 유럽> 9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0.8%, -0.8%, -1.3%) 그리스 긴축재정안 의회 표결 메르켈 유럽의회 연설	韓> 읍선만기일 9월 통화공급 M2 YoY (0.1%, n/a, 0.9%)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5.5만, 36.5만, 36.3만) 9월 무역수지 (-\$41.5B, -\$45.0B, -\$44.2B) 유럽> ECB 금리 공시 (0.75%, 0.75%, 0.75%) BOE 금리 공시 (0.50%, 0.50%, 0.50%) 中> (11/8-14) 제18차 전국대표회의 日> 9월 경상수지 YoY (68.7%, -52.7%, 4.2%)	韓> 금통위 금리결정 (2.75%, 2.75%, 2.75%)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0.2%, n/a, 1.0%) 美> 10월 수입물가지수 YoY (0.4%, -0.5%, -0.6%) 미시건대 소비자심리평가지수 속보치 (84.9, 82.9, 82.6) 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7%, 1.9%, 1.9%)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8%, -2.7%, -3.6%) 10월 산업생산 YoY (9.6%, 9.4%, 9.2%) 10월 소매판매 YoY (14.5%, 14.4%, 14.2%) 日> 10월 통화량 M2 YoY (2.3%, 2.4%, 2.4%)
12	13	14	15	16
유럽> (11/11) 그리스 2013년 예산안 의회 표결 유로존, EU 재무장관회의 中> (11/10) 10월 무역수지 (\$31.99B, \$27.30B, \$27.67B) (11/10) 10월 수출 YoY (11.6%, 10.0%, 9.9%) (11/10) 10월 수입 YoY (2.4%, 3.4%, 2.4%) 10월 신규 위안 대출 (505.2B, 590.0B, 623.2B) 10월 통화공급 M2 YoY(미확정) (n/a, 14.5%, 14.8%) 日> 3분기 GDP QoQ 속보치 (-0.9%, -0.9%, 0.2%) 실적발표> 韓 현대미포조선, 현대상선, 농심, SK네트웍스	美> 10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n/a, 93.0, 92.8) 하원 개회 유럽> 독일 11월 ZEW 현황 조사치 (n/a, 8.0, 10.0) 독일 11월 ZEW 전망 조사치 (n/a, -10.0, -11.5) 실적발표> 韓 게임빌, 동양기전 美 홈데포, TJX 컴퍼니	韓> 10월 실업률 (n/a, 3.1%, 3.1%)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5.0%)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2.6%, 2.1%) 10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n/a, -0.2%, 1.1%) 9월 기업재고 MoM (n/a, 0.5%, 0.6%)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유럽> 9월 유로권 산업생산 MoM (n/a, -2.0%, 0.6%) 中> 제18차 당대회 폐막 실적발표> 韓 한신, 한국전력, LG전자, 삼천리, 이수화학, 롯데삼강 美 시스코 시스템즈, 아베크롬비 & 피치	韓> 10월 수출물가지수 YoY (n/a, n/a, -1.9%) 10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n/a, -2.4%)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7.5만, 35.5만)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2.1%, 2.0%) 1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n/a, -7.35, -6.16) 11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n/a, 1.5, 5.7) 유럽> 10월 유로권 CPI YoY (n/a, 2.5%, 2.6%) 3분기 유로권 GDP YoY 속보치 (n/a, -0.6%, -0.5%) 中> 10월 실질 FDI (미확정) (n/a, 1.0%, -6.8%) 실적발표> 美 월마트, 비아콤, 타겟	美> 10월 산업생산 YoY (n/a, 0.2%, 0.4%) 유럽> 9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n/a, 9.5B, 9.9B) 실적발표> 美 델*, 갭*
19	20	21	22	23
韓> 10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10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美>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 10월 기준주택매매 MoM 실적발표> 美 로위스, 타이슨푸드	美> 10월 주택착공건수 MoM 10월 건축허가 MoM 日> BOJ 정책금리 실적발표> 美 HP, 하인즈, 베스트바이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0월 경기선행지수 MoM 日> 10월 수출 YoY 10월 수입 YoY 실적발표> 美 세일즈포스닷컴*, 디어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럽> 11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속보치 11월 유로존 PMI 제조업 속보치 11월 유로존 PMI 서비스 속보치 (11/22-23) 유로존 정상 회담 中> 11월 HSBC플래시 PMI 제조업	美> 블랙 프라이데이 실적발표> 韓 한국투자금융지주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